

완주군, 현장행정 가속화

상관·구이면서 관광객 유치 전략 논의

완주군이 5번째로 상관·구이면을 찾아 현장 심층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장 으뜸행정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구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상관면과 구이면 주요 현안.쟁점사업 점검을 위해 박성일 완주군수 주재로 용진읍장, 소양면장, 군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높은 현장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관면과 구이면은 최근 전원레저와 생태힐링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고 동시에 전주 도심권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점을 활용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전주시민들이 유인할 수 있는 관광전략과 도시민 유치 전략들이 주요 논의됐다.

먼저 상관면은 상관 편백나무숲과 구이 광곡리를 잇는 힐링코스 개발,

상관저수지 활용한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화, 정여립 선생 생가터·침압 이삼단 선성 고택지의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용진 한옥마을 조성, 죽림온천 활성화 방안 등이 접점됐다.

특히 박성일 군수는 "상관면에는 편백숲, 죽림온천, 상관저수지, 죽림역, 전추천 등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지역 활성화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 한옥마을을 관광객들이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태 관광자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계해 전부를 대표하는 건강생태지역벨트 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상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구이면은 구이저수지,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모악산을 연계하는 삼각 관광벨트 구축에 박

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들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구이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상레저 관광단지, 저수지 물레길 등을 명소화하고 이를 술 테마박물관, 모악산과 연계하는 체류형 대표 관광지 종합 플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박 군수는 지난해 10월 개관한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 박물관 2단계 휴양관광단지 조성, 수유저수지 중심의 논농어 체험프로그램과 휴양, 숙박, 교육 등 복합 체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관생활체육공원 조성, 신리역 유체지 활용방안, 구이소재지 주차장 문제, 구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0여건의 군정 주요현안 및 이슈들이 이날 현장 심층토론회에서 집중 점검됐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신입 직원들이 황정수 군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무주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군,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16일과 17일 전 통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원, 덕유산 등지에서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선 6기 농업 관공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4년부터 입사한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무주군 농업 및 관공비전에 대해 공유했으며 새우에듀컨설팅 이홍주 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숙 서기관, 인하공전 관광경영과 김재호 교수를 초청해 강의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군수와 함께 하는 공통 토크'를 통해 군정에 관한 아이디어와 공직자로서의 소회, 직원 간 유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며 무주군 "농업 + 관광발전"을 위한 자유토론회에도 함께 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덕유산에 올라 설천봉에서 향적봉, 구천동 계곡을 트레킹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새내기 공무원들은 "무주군 공무원으로서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공전의 분모를 가지고 모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동료들이 한결 더 돈독해진 느낌"이라며 "앞으로 조금 더 자신있게 일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자랑스러운 무주군 공무원으로 남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목표 달리기

장수군, 농수개교 공연 개최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 관내 중학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농수개교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서울 대학로 "소담소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김은영 코디네이터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한 후 인문학 고전과 웃음을 통해 학교폭력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공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강의식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아닌 체험형식의 공연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지루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농담 깎이 작목반 영농교육

진안군 용담면(면장 박태열) 깎이작목반인 20여명은 지난 16일 안천면 '미안산 정기담' 깎이 영농조합법인 허재택 대표와 조인규 사무국장 등을 강사로 초빙해 깎이 재배기술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깎이재배 시 겪는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리장해 극복방법, 친환경 병충해 방제법 등 실제 영농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농가들은 "그동안 깎이를 재배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했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에 참여해 재배기술 습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깎이를 생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안성파출소, 현장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안성파출소는 지난 17일,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민간 협력 단계 활용 필요성과 상호 협조를 통해 맑고 귀엽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내자는 일함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매뉴얼 홍보 및 배포, 안전지킴이집 활동에 있어 힘든 점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사는 우리 아이들이 취약한 가정 환경으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관심을 꼭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 남원성일병원 정신질환자 보호협약 체결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에서는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지난 17일 정신의료기관인 남원성일병원(이사장 박성주)과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및 정신보건법(제26조)에 의해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협조 및 관련 절차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범죄예방 활동 참여, 범죄 예방 환경개선 지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유에 합의하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군, 구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경천리 오복교 ~ 고산천 2017년부터 60억원 투입

완주군은 2017년 환경부 지특예산 지원사업으로 구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오복교 ~ 고산천 합류점까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6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생태습지조성, 호안정비, 어도개량 등을 통하여 하천의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구룡천은 인접한 경천저수지, 경천에인권역 등을 어우르는 하천으로서 주변 관광지의 중심축을 이루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관광네트워크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거 하천은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물론 일상생활의 터전으로 기능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무분별한 사업화로 오염됨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사람들과부터 위망되고 기피되어 감에 따라 환경부는 과거의 친수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매년 대상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천, 삼천, 고산천, 삼례 금야습지 등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석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착수를 위해 실시설계공역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 재난안전과장(최충식)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완주군 천혜의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천저수지 개발과 함께 구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하여 관광네트워크 형성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성암영농조합법인은 번암초 모교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장수군 성암조합 대표의 따뜻한 후배사랑

번암초 학생 해외역사탐방 3년째 후원

장수군 성암영농조합법인(대표 이성철)은 번암초등학교 제53회 졸업생으로 모교 후배들을 위해 올해도 발전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성철 대표는 번암초등학교(교장 홍해숙)에 2014년부터 300만원씩 3년째 후원을 하고 있다. 이 발전기부금

은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역사탐방 활동비로 쓰이고 있다.

번암초등학교 학생들은 2015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온 바 있으며, 2016년 6월 22~24일에는 중국 하얼빈으로 역사탐방을 떠날 예정이다. 교장

홍해숙은 "산골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경관을 넓힐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발전기부금은 고려인, 항일독립운동, 동북공정 등 역사문제를 다루는 건전한 의미있는 해외 역사탐방 활동비로 쓰겠다"고 했다.

이성철 대표의 해마다 이어지는 선행은 모교 후배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닌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이주여성, 어르신들에 웃음 선사

군 사랑나눔봉사단, 매월 봉사활동 '호응'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나눔 봉사단은 매월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

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13일에도 월림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어



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리고 노래와 건강체조를 함께하며 심명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식거리로 찹쌀 반죽과 콩가루 등 인절미 재료까지 준비해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 나눠 먹는 등 이주여성들의 아름다운 행보에 칭송이 자자하다.

올해 8개소의 경로당 방문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여성 사랑나눔봉사단은 현재 주공1·2차, 연구1동, 월림아파트 등 4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웃음과 건강을 위한 행복 바이러스 전파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 한모(30, 미령면)씨는 "반갑게 맞이해주고 즐거워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볼때마다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같아 행복감을 느낀다"며 "봉사활동은 결국 내가 행복해 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부가 창출 치어방류 확대

배장어·쓰가리·다슬기 등

진안군은 하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까지 치어방류를 확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용담호 및 읍7면 저수지에 배장어 9,000마리를 방류하고 15일에는 붕어 6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엔 배장어와 붕어 치어는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치어로 어업인들의 희망 품종을 반영해 선정했다.

고부가까지 치어방류는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쓰가리 3만 마리, 다슬기 150만 마리, 동자개 8만 마리 등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지난 3월에도 정천면 월평천에 붕어 수정란 500만 알, 5월 용담호에 참깨 6만 4천 마리를 방류했고 지난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산란장 3곳을 용담댐 내에 설치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방류지역에 대한 주민 홍보와 환경보호, 불법어업 및 유어행위 단속강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진안군 내수면 어족자원을 확대하여 깨끗한 정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3회 전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가 18일 무주에서 성황리 열렸다.

무주 개최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성황

제13회 전라북도지사기 도, 시, 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8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라북도지사기 도, 시, 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는 도내 공무원 배드민턴 동호회 간 교류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도, 시, 군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도가 주최하고 무주군이 주관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11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장, 백경태 도의

원과 무주군 배드민턴 연합회 김용배 회장, 전북도청 배드민턴클럽 오택림 회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배드민턴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지며 전라북도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을 우리고장 무주에서 뵈게 돼 더 기쁜 마음"이라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하루, 서로서도 응원하며 마음을 돈독히 하는 하루, 반듯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심지 무주의 청정함으로 힐링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